

## 일본 경제 무역 센터의 추계 회원 간담회에서의 강연

### - 최근의 중국 정세 <1/3>

일본의 일중 경제 무역 센터(日中 經濟 貿易 center)는 2010년 10월에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에서 추계 센터 회원 간담회(秋季 center 會員 懇親會)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이 모임에서 이도추 중국 종합 연구소(伊藤忠 中國 綜合 研究所)의 후루야(古屋) 대표가 최근 중국 정세를 테마로 강연하면서 ‘2008년의 리먼 쇼크(Lehman Shock)로부터 2011년에 시작되는 중국 5개년 계획’과도 관련된 전망을 한 내용이다.

#### ◎ 잇도 료단의 힘이 큰 효력 보여

우선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 노동 쟁의, 인민 위안의 문제 등을 살펴보려 한다.

현재 중국 경제는 대단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의 리먼 쇼크 이후로 세계가 겪고 있는 동시 불황을 중국은 잘 넘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일당 독재(一黨 獨裁) 정치력의 승리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일당 독재의 유리한 점을 온전히 살려 뛰어 넘어갔다는 의미이다. 2009년도 제 1사분기에 6.2% 성장률을 바닥으로 멋지게 V자 회복(不況으로부터의 回復線의 회복 상황에 따라 V자형, U자형, W자형 등이 있는데, V자형이 가장 빠른 회복선임)을 하였다. 나는 곧잘 농담으로 일본말로 잇도 료단의 힘(一黨 兩斷, 원래는 一刀 兩斷이며 一刀도 일본말로 잇도라고 발음하면 一黨의 발음과 똑같아서 한 칼로 물건을 두 개로 자르듯 한당의 독재로 승리를 거둔 힘)에 의한 공(功)을 말하고 있다.

이 리먼 쇼크를 계기로 중국은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단숨에 커졌다. 멋지게 위기를 찬스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외부 발생적(外部 發生的)인 위기에 대하여는 비교할 데가 없을 정도의 강점을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중국 내부에서 생긴 위기에 대하여는 대단히 약한 것 같이 느껴진다. 농민 폭동이나 소수 민족 문제 등의 내정상(內政上)의 문제

에 대하여는 매우 맥없이 대응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정치력을 내보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극복은 하였지만 많은 돈이 시장에 나돌게 되었다. 처음으로 경험한 국제 경제 위기였는데 1997년에 있었던 아시아 금융 위기 이상이었으므로 정부는 몹시 당황하여 지나칠 정도의 적극 재정과 과도한 금융 완화(金融 緩和)를 하였다. 그 결과 경기는 크게 회복하였지만 그만큼 많은 돈이 시중으로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모두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조 위안의 대형 경제 대책이 발표된 것은 9월 15일부터 55일이나 지난 11월 9일이었다. 11월 15일에 워싱턴에서 G20이 개최되기 1주일 전이었다. 4조원이 발동될 때까지 55일간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당황하였다는 의미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아무튼 전례가 없는 위기였으니 무리일지라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남아도는 돈이 시장 여러 분야에 들어가 있어 중국은 버블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적극 재정이나 과도한 금융 완화로 인한 외상을 지불해야 할 국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급격한 버블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10년 초부터 과도한 금융 완화 방향을 바꾸어 금융 긴축 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2010년 하반기가 되어 서서히 긴축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예금 준비율을 올리는 것도 1월, 2월, 5월로 3번이나 올렸다. 인플레이션이 8월에 3.5%가 되었는데 이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자율도 머지않아 올릴 것이다.

그 영향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에서 감속 경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제 1사분기에 2009년 동기와 비교하면 11.9% 늘었고 제 2사분기에는 10.3%가 늘어 서서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사분기는 아마도 1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될수록 증가 페이스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제로도 9.6% 증가(增加)에 그쳤다. 제 4사분기에는 더욱 9% 정도까지 더 내려갈 것 같다. 2010년 통기(通期)로는 10% 내외 수준이 될 것이다.

2011년에도 감속 경향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그리 간단하게 버블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8년 올림픽(Olympic : 五輪)이나 2010년 국제 박람회

(國際 博覽會, international exhibition, 일본어로는 萬博 또는 萬國 博覽會)도 끝나 중국 경제는 축제에 지친 상황이므로 경기 후퇴는 2011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에는 긴축 정책만으로는 경제가 정상화가 안 되므로 정부는 큰 경기 회복 대책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경제 과열되어 일극으로 집중

2012년에 5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당 대회(黨 大會 : 제 18회 당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당 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 등의 주요 멤버가 교대(交代)한다. 중국의 주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9명이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중요 사항을 토의 · 결정하는 경영 회의 멤버에 상당한다. 9명 중에서 7명이 이 당 대회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제까지 당 대회가 있는 해의 전년에는 경기를 올려 다음 지도자에게 원활(smooth)하게 바통 터치(baton touch)하는 패턴이 중국 경제에는 있다. 1997년의 아시아 위기와 2007년의 경기 조정은 예외이지만 보통 이와 같은 패턴을 볼 수 있다. 그래서 2011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서서히 바로 잡혀 2012년이 되면 10% 이상의 성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경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심은 할 수 없다. 중국 금융 시스템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 채정과 과도한 금융 완화책에 의한 과잉 융자 실태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융 위기로 융자가 커진 결과 지방 정부계 기업이 은행에서 큰 금액을 융자 받았으며 그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환수될 수 없는 사태가 지방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경기 자극책을 쓴 결과 금융 기관이 지방 기업에게 엄격한 심사가 없이 너무 자금을 융자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상환 불능, 담보 부족과 같은 사태가 생겼다. 특히 자금 흐름을 더욱 빠르게 한 것이 2009년 이후로 지방 정부가 연달아 만든 지방 융자 평대(地方 融資 平臺 : 地方 融資 platform)라고 하는 구조인데 이를 통해 수 천 개 회사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금융 기관은 이들 플랫폼을 거쳐서 지방 정부계 기업에 자금 제공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기관은 지방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구조를 써서 지방 정부계 기업이 쉽게 큰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돈은 고속도로나 철도 건설 등

인프라 정비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자금은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들어갔다. 중국인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요술 방망이로써 치부(致富)하는 도구로 되어 있다. 부동산 수입은 지방 정부의 큰 재정 수입원으로 중국 재정 수입 약 100조엔(2009년분) 중에서 약 20%가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토지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있어 중국에서는 정부가 최대 지주(地主)이다. 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국내 기업이나 외자 기업에 팔아 재정 수입을 받아 각종 프로젝트 자금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시(上海市)는 사용권 판매 수입이 재정 총 수입의 25%, 베이징시(北京市)는 46%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땅 값이 높아지면 재정 수입이 늘어나고 반대로 땅 값이 싸지게 되면 재정 수입이 줄어버린다는 현상이 일어난다.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로서도 추진하고 싶은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되므로 땅 값을 가급적 높게 유도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동산 버블은 숙명적으로 발생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중국 사회는 부동산에 자금이 잇달아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버블이 생기기 쉽고 이 부동산 버블이 원동력으로 되어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부동산 버블은 고도성장을 만들어 낸 원조(元祖)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금은 생산 과열 업종(生産 過熱 業種)에도 많이 흘러들어 갔다.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등의 수요가 큰 업종이나 태양광 발전 설비나 기계 및 자재로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수요 이상으로 설비 능력이 커져버렸다. 지금 중국의 큰 문제는 이 공급 설비 능력과 수요의 갭(gap), 다시 말해서 수급 갭(需給 gap)이 커졌다는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이와 같은 과열 업종에 돈이 너무 많이 흘러들어가고 말았는데 이는 금융 기관에서도 쉽게 돈을 대출해주었기 때문이다.♣